

군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록

위원회 차수	2024년 제2차	비 고
일 시	2024. 10. 30.(수) 14:00	
장 소	군산시청 4층 상황실	
출석위원	9명	
회의진행 순서	개회-위원장 인사-안건처리-폐회	
상정안건	군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현황보고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	

위원 발언요지

[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현황보고
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]

○ 신원식 위원장

- 우리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얼마나 있는지와
현재 송전선로 개통 문제, 새만금산단 입주 기업체 증가 등 여러
여건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
- 군산시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시나리오 2*도 나쁘지 않다고 보임
- *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인벤토리 1: 41% 감축, 인벤토리 2 : 27% 감축
- 탄소중립 관련해서 제도적인 것들은 국가에서 하지만 우리시에서도
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

○ 김성천 부위원장

- 산업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많고 기업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함
-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배출량이 작은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배출량이 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기업은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, 행정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EU에 수출 문제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와 관련하여 군산시에서는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태양광 등에 있어 묶어둔 부분을 풀건 과감히 풀어서 향후를 바라보고 나아갈 필요가 있음

○ 장영재 위원

- 시나리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
 - (녹색환경센터) 현재는 해야한다고만 되어있지 세부적인 페널티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
 -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더 노력을 안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,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목표보다는 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
 - 시민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‘현재의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수준에서 감수하겠다.’라는 것이므로, 실천이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
-

○ 강영신 위원

-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등 시군구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어떤 함수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므로, 감축 시나리오 설정 외에 도와 연계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성이 있음
- (녹색환경센터)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며, 도 계획과 관련된 여러 여건·상황 등을 검토 및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

○ 이대승 위원

- 호남권에 대한 송전선로 개통 제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군산은 태양광, 풍력 등 재생에너지 파트를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
- 흡수원의 경우 임령 등에 따라 탄소 흡수량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나무가 많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, 얼마나 계획적으로 조림을 할 수 있는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
-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2*가 괜찮다고 보임

*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인벤토리 1: 41% 감축, 인벤토리 2 : 27% 감축

○ 박서현 위원

-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서야 하므로 구조적인 대책 외에도 홍보가 많이 필요함
 - 군산시 각 부서들도 탄소중립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탄소 중립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
 - 기본계획 수립 시 흡수원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음
-

심의결과

[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현황보고
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]

- 군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온실가스 감축목표
 -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인벤토리 1 : 41% 감축, 인벤토리 2 : 27% 감축
(참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, 반대 0명)
-